

# 이주민의 가치 연구\*

- 필리핀 CFO 교육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이 용 승 (대구대학교)  
(yiyongseung@daegu.ac.kr)

##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으로의 이주가 최종적으로 승인·결정되어 이주의 마지막 절차를 이수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여성의 가치체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주민이 수용국에 입국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일상적 가치는 수용국 사회에서의 초기 정착과정은 물론 이주 이후 적응 및 통합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결혼이주민은 한국에서 일상적 삶을 영위할 것이 전제되고, 그것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인과 공동의 삶을 살아갈 것이 기약된 이들이다. 이들이 어떠한 가치를 체화하고 이주 수용국으로 들어오는지, 이주 수용국의 주류와는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적 검토는 향후 이주민 개인의 삶을 가늠하는 과정에서, 또한 사회통합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긴요한 요소이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이주민의 개인적 가치, 가족 가치, 사회적 가치를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추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6개월 동안 CFO의 도움을 얻어 필리핀 현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렇게 수집된 설문지를 분석하여 '세계가치조사'의 한국과 필리핀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를 통해 한국의 이주민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결론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다문화정책이 각 문화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정책이라면 한국과는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이주민의 특성과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413-B00023).

가치인식을 파악하는 데에 그 출발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 글은 그러한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 이주민의 가치, 세계가치조사, 문화적 가치 인식, 이주정책, 사회통합

## I. 서론

이주민이 수용국에 입국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일상적 가치는 수용국 사회에서의 초기 정착과정은 물론 이주 이후 적응 및 통합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만일 이주민이 지니고 있는 일상적 가치가 수용국의 가치 체계와 유사하다면 목적국에서의 적응은 그만큼 수월해 질 수 있다. 물론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계에서 애초 다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던 이주민이 수용국의 일상적 가치에 미리 익숙할 개연성은 상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입국 전후 보유하고 있는 가치의 문제는 이주 수용국의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주민의 일상 가치는 이주 수용국에서 사회통합의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국으로의 이주가 최종적으로 승인·결정되어 이주의 마지막 절차를 이수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여성의 가치체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그들의 가치체계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결혼이주민은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민(immigration)이 허용되는 ‘집단’이다. 보통 이주 수용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이주민에 대해서 한국은 엄격한 순환이주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여타의 이민 또한 매우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sup>1)</sup> 결혼이주민은 한국에서 일상적 삶을 영위할 것이 전제되고, 그것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인과 공동의 삶을 살아갈 것이 기약된 이들이다. 물론 이들이 초국적 실천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한국을 근거지로 하여 살아갈 것은 분명하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주여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어떠한 가치를 체화하고 이주 수용국으로 들어오는지, 이주 수용국의 주류와는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적 검토는 향후 이주민 개인적 삶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매우 긴요한 논의일 수밖에 없다.

1) 한국에는 출입국관리법만이 존재하고, 이민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의 명징한 반영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다문화정책'으로 통칭되는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그러나 그것의 본래 의미와는 달리 '동화정책'에 가깝다는 비판이 시행 초기부터 지속되어 왔다. 이주민에 대해 단지 한국 사회로의 편입과 문화적 동화를 의도하기보다는 이주민들의 가치와 문화, 관행을 고려하여 그들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그러한 정황으로 인해 동화정책의 양태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정책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글은 빈도분석을 주로 활용한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이주여성의 가치와 문화적 관행을 연구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 또한 민족국가가 주를 이루는 국제 체계에서 국가별로 문화적 상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의 국가별 차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거의 전무하다. 이 글이 이주여성 전체가 아닌 특정 국가(필리핀)의 이주여성에 주목한 이유이다.

현재 한국에는 54,089명의 필리핀 국적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미국, 베트남, 타이에 이어 5번째 규모이다. 이 중 결혼이주민은 11,080명(여성 10,762명)이다. 필리핀 결혼이주민은 2015년 3월말 현재 전체 결혼이주민 150,222명의 7.4%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전체적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필리핀의 경우 한국으로의 결혼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었고, 그런 만큼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활동도 활발한 편이다. 또한 현재는 가족결합이주가 허용되지 않지만 만약 허용된다면 상당히 많은 필리핀 이주여성의 가족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소위 말하는 연쇄이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의 서술을 지도하는 연구 질문은 이주여성은 어떠한 가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한국인의 문화적 가치인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나아가 그 차이는 한국이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연구 질문을 따라가기 위한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는 설문 조사 등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과 설문 응답자의 일반 현황을 담았다. 3장에서는 이주여성의 개인가치로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가치 인식, 삶의 행복감과 만족도, 윤리관을 살펴보았다. 4장은 이주여성의 가족가치로서 부모 및 부부관, 자녀 양육관을 다루는 데 할애하였다. 본론의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필리핀 이주여성의 사회적 가치로서 타인 및 직업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와 종교에 대한 가치 평가, 국가관 등을 비교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6장은 결론으로서 본론 각 장의 논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각 장의 구성에 따라 재정리하고, 이 글이 갖는 함의를 몇 가지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설문조사 방식의 양적 연구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를 앞두고 있는 필리핀 이주여성의 문화적 가치인식을 한국과 필리핀의 그것과 비교해 보고자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우선 설문지는 현지 방문을 통해 조사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맞추어 준비되었다. 설문 문항은 ‘세계가치조사’(WVS, World Values Survey)의 질문지를 참조, 재구성하였다. 한국과 필리핀이 모두 포함된 세 번째(1995-1998)와 네 번째(2000-2004) 세계가치조사의 설문 문항 가운데, 한국과 필리핀의 응답률이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차이가 있는 조사 항목을 추렸다.<sup>2)</sup> 설문 문항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필리핀 이주여성의 가치인식을 한국과 필리핀 일반의 가치와 직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WVS의 1981-2004의 통합 설문지(integrated questionnaire, 864문항) 가운데, 1차적으로 필리핀과 한국이 모두 포함된 조사 (3, 4 Wave) 항목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로는 WVS 온라인 분석을 활용하여 양국 간의 가치 조사 결과가 해석을 부여할 정도로 차이가 있는 항목을 두 번째로 추출하였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을 추린 이유는 두 국가 간의 가치 조사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항목은 적어도 두 국가 모두 공유하는 가치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주여성의 가치조사에 크게 활용성이 없는 문항은 배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86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설문문항의 범주는 임의로 삶에 대한 인식, 환경(environment), 직업, 가족, 정치와 사회, 종교와 도덕, 국가 정체성, 인구통계학적 특징으로 분류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한 분석은 이주민 정책과 관련하여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맞추는 과정에서 애초 설문 문항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분석과정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은 항목도 있다.<sup>3)</sup> 이렇게 조사된 항목은 다시 한 번 개인가치, 가족생활 가치, 사회가치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재분류하여 분석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기가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한국과 필리핀 일반의 문화적 가치인식과 필리핀 이주여성의 가치를 비교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필리핀 이주여성에게 한국의 가치 차이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필리핀인의 일반적인 가치와의 비교는 한국으로 이주를 선택하는 사람들과 일반인들과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이주에 있어 가치가 차지할

2) 현재 세계가치조사 홈페이지에는 6번째 조사(2010-2014)의 결과까지 등록되어 있으나 조사를 설계할 당시에는 6번째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다섯 번째 조사에서는 필리핀이 누락되어 있어 참고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3) 일례로 환경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으나 이 논문이 초점을 두고 있는 이주여성의 가치인식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과의 비교는 이들이 한국 국적자와의 혼인을 통해 가족 구성을 전제로 이주하는 만큼 문화적 가치의 차이가 낳을 수 있는 갈등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이주민 정책에서 무엇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비교의 주요 대상은 한국의 경우 2010년 조사와 필리핀의 경우는 2012년 조사(Wave 6)이다.<sup>4)</sup> 이 조사 항목에서 빠진 부분은 그 이전 조사 자료를 참조하였다. 이 글의 주 비교 대상인 세계가치조사의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연도를 표기하지 않았고, 여섯 번째 조사결과가 아닌 경우에만 연도를 따로 명시하였다. 응답자는 조사 당해 1,200건으로 모두 동일하다.

설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2월 중순 약 열흘 동안 연구자가 직접 필리핀 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sup>5)</sup>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68부)하였고, 두 번째는 CFO의 협조를 얻어 약 6개월(2월 - 7월)에 걸쳐 진행(133부)하였다. 설문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고, 필리핀 현지 설문조사는 타갈로그어와 한국어, 영어에 모두 능숙한 필리핀인 한국 생활 교사(Eugene Docoy 신부)가 진행하였다. 전체 수거된 설문지 201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설문지 6건과 남성 응답 설문지 9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된 설문지는 186건이다.<sup>6)</sup>

설문 응답자의 나이 분포는 20대가 74.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30대가 14.9%로 전체적으로 20-30대가 약 90%를 차지했다. 평균 나이는 23.67세로 한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 여성의 나이가 국내의 일반적인 평균 결혼 연령대(2013년 기준 여성 29.59세<sup>7)</sup>)와 비교하여 약 6살가량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은 대학을 경험한 여성이 50.3%(대졸 23.7% 포함)이며, 고졸 이하가 29.5%로 그 뒤를 이었다. 2012년 필리핀인에 대한 세계가치 조사에서 대학 경험이 27.3%에 그친 것과 비교해 보면 결혼이주여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

4) 설문 조사는 매번 유사한 질문 문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문 항목은 34번째 조사에 기초하였으나 결과 비교는 최종 조사 결과(6 Wave)를 주로 하였다.

5) 취업 등 “장기거주를 위해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필리핀인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자 장관급 기관인 CFO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결혼이주민의 경우 이들에 걸쳐 이루어지는 CFO 교육 이수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CFO 교육에서는 한국 정부(여성가족부)의 협조를 받아 한국 생활 및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이용승 2014, 125).

6) CFO를 통해 교육을 받는 이주 여성의 절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문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남성을 제외한 이유는 이들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9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별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7) 출처: www.kosis.kr (검색일: 2015. 4. 2.)

〈표 1〉

| 연령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합계                 |                    |       |       |  |       |
|-----------------|-------------|-------------------|--------------------|--------------------|--------------------|--------------------|--------------------|-------|-------|--|-------|
| 빈도              | 15          | 131               | 26                 | 2                  | 1                  | 175                |                    |       |       |  |       |
| 비율              | 8.6         | 74.9              | 14.9               | 1.1                | .6                 | 100.0              |                    |       |       |  |       |
| 학력수준            | 초졸 이하       |                   | 중졸 이하              |                    | 고졸 이하              |                    | 대졸 이하              |       | 합계    |  |       |
| 빈도              | 17          |                   | 20                 |                    | 54                 |                    | 92                 |       | 183   |  |       |
| 비율              | 9.3         |                   | 10.9               |                    | 29.5               |                    | 50.3               |       | 100.0 |  |       |
| 계층              | 상위계층        |                   | 상위 중산층             |                    | 하위 중산층             |                    | 노동계층               |       | 하위계층  |  | 합계    |
| 빈도              | 9           |                   | 78                 |                    | 37                 |                    | 45                 |       | 3     |  | 172   |
| 비율              | 5.2         |                   | 45.3               |                    | 21.5               |                    | 26.2               |       | 1.7   |  | 100.0 |
| 가계소득<br>(PHP/월) | 5,000<br>이하 | 5,000 -<br>10,000 | 10,000 -<br>15,000 | 15,000 -<br>20,000 | 20,000 -<br>30,000 | 30,000 -<br>40,000 | 40,000 -<br>50,000 | 합계    |       |  |       |
| 빈도              | 33          | 43                | 38                 | 37                 | 9                  | 9                  | 6                  | 175   |       |  |       |
| 비율              | 18.9        | 24.6              | 21.7               | 21.1               | 5.1                | 5.1                | 3.4                | 100.0 |       |  |       |
| 거주지역            | 농촌지역        |                   | 중소도시               |                    |                    | 대도시                |                    | 합계    |       |  |       |
| 빈도              | 60          |                   | 82                 |                    |                    | 33                 |                    | 175   |       |  |       |
| 비율              | 34.3        |                   | 46.9               |                    |                    | 18.9               |                    | 100.0 |       |  |       |

주관적인 계층 소속은 상위 중산층 이상이 50%(상위계층 5.2% 포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리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상위 중산층 이상 23.6%)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필리핀 여성의 생활수준이 필리핀 일반에 비해 높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가계소득과 비교해 보면 다른 결론에 이른다. 월수입이 20,000 페소 (약 50만원) 이하가 절대다수(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계층에 대한 응답은 주관적인 판단인 만큼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sup>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46.9%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농촌지역(34.3%)과 대도시 지역(18.9%)이 잇고 있다. 도시 지역 거주자가 65.8%에 이른다는 것이 이들이 만일 한국의 농촌 지역에 정착한다면 초기 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8) 참고로 2012년 조사에서 필리핀인의 주관적 계층 의식은 상층 2.8%, 상위 중산층 20.8%, 하위 중산층 40.5%, 근로계층 20.1%, 하층 15.6%로 나타났다.

### Ⅲ. 이주민의 개인가치

이 부분에서는 먼저 일상적인 삶에 있어 특정 대상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 항목은 가족, 친구, 정치, 종교 등이다. 아래 <표 2>는 각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 2> 특정 대상에 대한 가치 인식

| 가 족            | 매우 중요 | 조금 중요 | 별로 중요하지<br>않음 | 전혀 중요하지<br>않음 | 합 계   |
|----------------|-------|-------|---------------|---------------|-------|
| 빈 도            | 185   | 1     | 0             | 0             | 186   |
| 비 율(%)         | 99.5  | .5    | 0             | 0             | 100.0 |
| <b>친 구</b>     |       |       |               |               |       |
| 빈 도            | 97    | 84    | 5             | 0             | 186   |
| 비 율(%)         | 52.2  | 45.2  | 2.7           | 0             | 100.0 |
| <b>일(Work)</b> |       |       |               |               |       |
| 빈 도            | 151   | 33    | 1             | 1             | 186   |
| 비 율(%)         | 81.2  | 17.7  | .5            | .5            | 100.0 |
| <b>정 치</b>     |       |       |               |               |       |
| 빈 도            | 68    | 77    | 37            | 3             | 185   |
| 비 율(%)         | 36.8  | 41.6  | 20.0          | 1.6           | 100.0 |
| <b>종 교</b>     |       |       |               |               |       |
| 빈 도            | 140   | 38    | 8             | 0             | 186   |
| 비 율(%)         | 75.3  | 20.4  | 4.3           | 0             | 100.0 |
| <b>봉 사</b>     |       |       |               |               |       |
| 빈 도            | 88    | 82    | 13            | 3             | 186   |
| 비 율(%)         | 47.3  | 44.1  | 7.0           | 1.6           | 100.0 |

먼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에서 필리핀 이주 여성의 절대 다수(99.5%)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2010년 한국의 조사 결과에서 같은 응답이 91.3%, 다소 중요하다는 응답이 7.6%를 차지하였다. 2012년 필리핀 조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98.8%로 이번 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비교하여 필리핀인들이 가족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가족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가족을 중심에 놓고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보다 잘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필리핀 이주여성의 ‘친구’에 대한 응답에서는 오히려 한국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이주여성의 경우 친구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2.2%로 한국의 49.3%와 큰 차이가 없고, 필리핀의 30.8%보다는 상당히 높다. 이는 이주과정에서 친구의 소개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sup>9)</sup> 이주여성들이 ‘일’을 중요시 하는 분포는 필리핀 일반 조사(매우 중요 90.5%)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들이 이주 이후에도 자신의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이주여성들이 ‘노동이주’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주민 정책의 주요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해서 필리핀 이주여성은 한국(매우 중요 13.3%) 과 필리핀(매우 중요 24.3%)의 일반 조사 모두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매우 중요 36.8%).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정치가 필리핀 이주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설문조사기관이 정부의 주요 기관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또한 이주를 위해서는 정착국과 거주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가치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가치 부여는 한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반면 필리핀 일반의 응답 분포와 유사하다. 2010년 기준 필리핀인의 약 90% 가량이 크리스천이며, 스페인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그 가운데 가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National Statistics Office 2014). 또한 필리핀의 경우는 결혼중개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종교 기관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자면 종교에 대한 가치 평가(매우 중요 75.3%)가 필리핀 일반(매우 중요 85.9%)에 비해 낮은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어서 이들의 초기 정착과 적응 과정에서 종교가 모종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 종교를 활용하는 것이 이들의 정착과 통합에 큰 유용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삶에 있어 타인에 대한 봉사가 가지는 가치 인식(매우 중요 47.3%)은 필리핀 일반 조사(57.5%)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매우 중요 10.8%)과는 격차가 있다. 필리핀 이주 노동자나 결혼이주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리핀 이주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이러한 인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9)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장 최근의 결혼이주민 실태조사(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 만남 경로로서 ‘스스로’가 52.9%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친구 소개가 27.6%를 차지하고 있다.

10) 나이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계가치조사에서 20대 이하만을 따로 분석하였으나, 이 또한 전체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인다.<sup>11)</sup> 이주민들이 보이는 강한 공동체 의식은 같은 처지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기도 하겠지만 봉사에 대한 인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애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인식의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 있다. 상호부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문화적 가치 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이주민 공동체의 지원과 정책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지하다.

아래 <표 3>은 ‘세계가치조사’의 한국과 필리핀 응답 결과이다.

<표 3> 특정 대상에 대한 가치 인식 (WVS)

| 가족            | 매우 중요 | 조금 중요 | 별로 중요하지<br>않음 | 전혀 중요하지<br>않음 | 무응답  |      |
|---------------|-------|-------|---------------|---------------|------|------|
| 한국            | 91.3% | 7.6%  | 0.5%          | 0.3%          | 0.2% |      |
| 필리핀           | 98.8% | 1.1%  | 0.1%          | -             | -    |      |
| 친구            |       |       |               |               | 무응답  | 모름   |
| 한국            | 49.3% | 46.0% | 3.8%          | 0.2%          | 0.7% | -    |
| 필리핀           | 30.8% | 58.9% | 8.6%          | 1.6%          | -    | 0.1% |
| 일 (Work)      |       |       |               |               | 무응답  | 모름   |
| 한국            | 60.8% | 29.8% | 4.8%          | 3.4%          | 1.2% | -    |
| 필리핀           | 90.5% | 7.5%  | 1.4%          | 0.4%          | -    | 0.1% |
| 정치            |       |       |               |               | 무응답  | 모름   |
| 한국            | 13.3% | 41.9% | 33.6%         | 9.9%          | 1.3% | -    |
| 필리핀           | 24.3% | 39.4% | 20.2%         | 15.7%         | -    | 0.4% |
| 종교            |       |       |               |               | 무응답  |      |
| 한국            | 25.7% | 28.5% | 26.1%         | 18.5%         | 1.2% |      |
| 필리핀           | 85.9% | 12.2% | 1.6%          | 0.3%          | -    |      |
| 봉사<br>(2001년) |       |       |               |               | 모름   |      |
| 한국            | 10.8% | 53.8% | 29.2%         | 6.0%          | 0.1% |      |
| 필리핀           | 57.5% | 36.7% | 5.1%          | 0.7%          | 0.1% |      |

11)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KFCSA, Kyeongsan Filipino Community and Sports Association)가 있으며, 이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2014년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였을 당시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는 유사가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필리핀 이주여성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 한국 조사에서 ‘매우 행복하다’와 ‘행복하다’는 응답은 각각 15.2, 74.8%였고, 필리핀의 경우는 각각 49.2, 39.8%였다. 이에 비해 이주여성은 ‘매우 행복하다’가 66.6%, ‘행복하다’는 응답이 30.8%로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과 함께 모든 서류 절차가 완료되어 한국으로의 이주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주관적 행복감과 유사한 조사 항목인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1’ 불만족 ~‘10’ 만족) 조사에서 필리핀 이주여성은 평균 8.32로 나타났다. 일반인 조사에서 한국은 평균 6.51점, 필리핀은 평균 7.33점인 것과 비교해 보면 이주여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관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이 매우 높다는 것은 필리핀 일반의 낙천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들이 이주 이후의 삶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다. 정착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가 클 때 정책적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는 초기 정착 프로그램이 이주민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표 4〉 이주여성의 주관적 행복감

| 주관적 행복감    |     | 매우 행복 | 행복   | 행복하지 않음 | 전혀 행복하지 않음 | 합 계   |
|------------|-----|-------|------|---------|------------|-------|
| 빈 도        |     | 123   | 57   | 4       | 1          | 185   |
| 비 율(%)     |     | 66.5  | 30.8 | 2.2     | .5         | 100.0 |
| WVS<br>(%) | 한 국 | 15.2  | 74.8 | 9.2     | 0.7        |       |
|            | 필리핀 | 49.6  | 39.8 | 9.6     | 1.1        |       |

이주여성의 개인가치를 가늠해 보기 위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다음으로 선악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는지 혹은 상황에 따라 선악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 5〉 삶의 의미에 대한 사고 빈도

| 삶의 의미에 대한<br>생각 | 자주(often) | 가끔<br>(sometimes) | 드물게(rarely) | 전혀(never) | 합계    |
|-----------------|-----------|-------------------|-------------|-----------|-------|
| 빈 도             | 102       | 69                | 11          | 2         | 184   |
| 비 율(%)          | 55.4      | 37.5              | 6.0         | 1.1       | 100.0 |

〈표 6〉 선악 판단의 기준

| 선과 악       |     | 절대적 기준 | 상황 의존 | 모두 부정 | 합계    |
|------------|-----|--------|-------|-------|-------|
| 빈 도        |     | 94     | 55    | 28    | 177   |
| 비 율(%)     |     | 53.1   | 31.1  | 15.8  | 100.0 |
| WWS<br>(%) | 한 국 | 37.0   | 62.9  | 0     |       |
|            | 필리핀 | 54.0   | 43.0  | 0.9   |       |

이주여성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세계가치조사에서 '자주' 생각한다는 비율은 한국이 38%, 필리핀이 57.2%로서 삶의 가치에 대해 필리핀인들이 더 자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이 필리핀 일반의 응답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필리핀이 종교의 가치를 중시하고, 세속화와 현대화의 수준이 한국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의 자기 삶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미래를 새롭게 구상해 본다는 의미와 같다. 그런 까닭으로 삶의 의미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가족을 절대적으로 중시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중시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점이 정책 과정에서 감안되어야 할 이유를 말해준다.

선악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종교의 영향력을 볼 수 있다. 이주여성은 선악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진술에 53.1%가 동의하였는데, 2001년 세계가치조사에서 필리핀 일반 조사 결과(54%)와 거의 동일하다. 반면 한국은 동일조사에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진술에는 37%, 상황에 달려있다는 응답에는 62.9%가 동의하였다. 절대적 진리는 종교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보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큰 필리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정책에서 종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계속해서 이주 여성의 개인적 윤리관을 알아보기 위해 특정 이슈나 대상에 대해 얼마만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이 조사 항목에 대한 질문은 진술이나 대상을 제시하고 해당 진술이나 대상이 항상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점, 반대로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1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질문은 탈세("기회가 된다면 세금을 속일 것이다"), 뇌물, 동성애, 낙태, 이혼, 안락사 등이었다. 다음의 〈표 7〉은 이주여성들과 세계가치조사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다.

〈표 7〉 이주여성의 윤리 의식

| 구 분  | 탈세               | 뇌물              | 동성애             | 낙태              | 이혼              | 안락사**           |             |
|------|------------------|-----------------|-----------------|-----------------|-----------------|-----------------|-------------|
| 이주여성 | 3.48<br>(57.2%)* | 4.31<br>(38.4%) | 4.34<br>(34.1%) | 2.96<br>(63.5%) | 4.12<br>(35.6%) | 3.80(36.5%)     |             |
| WVS  | 한 국              | 1.71<br>(70.3%) | 1.60<br>(74.1%) | 3.28<br>(42.2%) | 3.36<br>(36.4%) | 4.53<br>(36.4%) | 4.56(24.2%) |
|      | 필리핀              | 3.72<br>(42.9%) | 4.00<br>(39.6%) | 4.47<br>(31.1%) | 3.09<br>(56.6%) | 3.97<br>(56.6%) | 2.93(49.8%) |

\* 괄호 안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응답 비율

\*\* 세계가치조사의 ‘안락사’ 항목은 2001년 조사 결과

이주여성들의 평균 점수는 대체적으로 필리핀의 일반조사와 경향을 같이하면서도 뇌물과 이혼, 안락사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한 태도를, 탈세, 동성애, 낙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탈세와 뇌물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로 이혼과 안락사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일반은 탈세와 뇌물, 동성애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낙태, 이혼, 안락사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 국가의 정치·문화적 환경 차이를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다. 필리핀은 차이에 보다 관용적이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 비해 낮다. 또한 필리핀은 종교적 인식과 관련지을 수 있는 이슈에 있어서는 비교적 비관용적 태도를 유지한다.

이주여성의 경우 가톨릭에서 금지하는 낙태와 이혼에 대해서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낙태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혼에 대해서는 필리핀 일반에 비해 비교적 관대하다. 그러나 여성으로 한정할 경우 이혼(4.09점)과 낙태(2.93점)에 대한 필리핀 여성의 인식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과 필리핀 공히 여성은 이혼과 낙태를 반대하는 성향이 남성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양국 모두 이혼과 낙태가 초래할 수 있는 부담이 여성에게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전체적으로 한국과 비교하여 이주여성은 탈세, 뇌물, 동성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낙태와 이혼, 안락사에

12)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경우 이혼과 낙태 모두 여성의 정당화 정도가 더 높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필리핀과 한국의 차이에 주목하였지만 양국의 차이는 여타의 국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유사한 편이라는 점이 지적될 필요도 있다. 일례로 이혼에 대한 정당화 정도는 호주 7.06, 일본 6.15, 스웨덴 8.27, 미국 6.21 점으로서 한국과 필리핀 모두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들 국가와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한국과 필리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높았다. 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 이해 교육에서 이 부분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IV. 이주민의 가족가치

부모에 대한 가치 인식에 있어 필리핀 이주 여성은 부모의 능력이나 결점 유무와 무관하게 자식으로서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0.7%이며, 부모 또한 자신의 복지를 희생해서라도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91.6%로 매우 높았다. 2001년 세계가치조사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에는 한국과 필리핀이 90% 이상으로 이번 조사와 큰 차이는 없었다.<sup>13)</sup> 이는 시부모 부양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큰 거부감없이 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부양 의무에 대한 응답에서는 한국과 필리핀이 큰 격차를 보였다. 2001년 필리핀 일반 조사에서 부모의 희생을 지지한 응답은 89.5%로 필리핀 이주여성도 2%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치지만, 한국의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0.7%, 부모의 사생활도 존중받아 마땅하며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응답이 49.2%로 이번 조사 결과와 거의 두 배의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를 고려한 응답은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졌다. 한국의 20대는 자녀양육보다는 부모의 사생활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7.8%로서 20대가 주 응답층인 이번 조사와 비교하여 더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10% 가량의 이동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주여성과는 차이가 컸다. 이러한 결과는 유교 혹은 가톨릭 등 각 국가의 전통적 요소에서 설명 요인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부모의 역할을 포함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핵가족화와 가족의 해체 현상을 동반하는 현대화 내지는 산업화 정도에 따른 가족기능의 변화가 부모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만든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 의무에 대한 이러한 인식 차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이주여성들이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특히 한국의 공교육 현장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작은 차이도 쉽게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정책을

---

13) 참고로 같은 조사에서 일본은 60.1%, 스웨덴은 41.6%, 미국은 76.6%였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결혼이주민이 어머니로서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부담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8〉 이주여성의 부모에 대한 인식

| 부모 존경 조건 |     | 부모의 능력, 결점과 무관하게 존경하여야 한다      |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 합 계   |
|----------|-----|--------------------------------|-----------------------------|-------|
| 빈 도      |     | 147                            | 15                          | 162   |
| 비 율(%)   |     | 90.7                           | 9.3                         | 100.0 |
| WVS (%)  | 한 국 | 92.2%                          | 7.8%                        |       |
|          | 필리핀 | 93.5%                          | 6.1%                        |       |
| 부모의 의무   |     | 부모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부모도 사생활이 있으므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합 계   |
| 빈 도      |     | 163                            | 15                          | 178   |
| 비 율(%)   |     | 91.6                           | 8.4                         | 100.0 |
| WVS (%)  | 한 국 | 50.7                           | 49.2                        |       |
|          | 필리핀 | 89.5                           | 9.7                         |       |

자녀 양육 시 필요한 가치에 대한 인식 또한 여러 특질 분야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이 가져야하는 책임감, 종교적 신념, 이타심, 순종 등의 자질특성을 질문하였다. 아래는 이주여성들의 응답 결과이다.

〈표 9〉 자녀 양육 가치

| 책임감    |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 합 계   |
|--------|------|---------|-------|
| 빈 도    | 182  | 3       | 185   |
| 비 율(%) | 98.4 | 1.6     | 100.0 |
| 상상력    |      |         |       |
| 빈 도    | 148  | 35      | 183   |
| 비 율(%) | 80.9 | 19.1    | 100.0 |
| 절 약    |      |         |       |
| 빈 도    | 180  | 4       | 184   |
| 비 율(%) | 97.8 | 2.2     | 100.0 |

|            |      |      |       |
|------------|------|------|-------|
| <b>종 교</b> |      |      |       |
| 빈 도        | 183  | 3    | 186   |
| 비 율(%)     | 98.4 | 1.6  | 100.0 |
| <b>이타심</b> |      |      |       |
| 빈 도        | 139  | 47   | 186   |
| 비 율(%)     | 74.7 | 25.3 | 100.0 |
| <b>순 종</b> |      |      |       |
| 빈 도        | 181  | 4    | 185   |
| 비 율(%)     | 97.8 | 2.2  | 100.0 |

먼저 책임감의 경우는 98.4%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세계가치조사의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 한국과 필리핀은 각각 87.8%와 67.2%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sup>14)</sup>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의 자질 가운데 책임감을 중시하는 정도가 필리핀 일반인보다는 오히려 한국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상력의 경우 2001년 세계가치조사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한국 33.4%, 필리핀 13.6%였으나 2010년대 조사에서는 한국 14.3%, 필리핀 14.0%로 그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80.9%가 자녀의 상상력을 중요한 가치로 뽑아, 한국과 필리핀 모두의 일반인 조사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상상력의 가치가 점차 등한시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필리핀 이주 여성은 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상력에 대한 가치 판단의 차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절약(Thrift saving money and things)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 이주여성은 97.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세계가치조사의 한국 65.1%, 필리핀 41.9% 모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한국의 경우 주관적 계층 인식에 따라 이 항목의 응답 비율이 변화한다. 즉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절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낮아진다. 이로 미루어 이주여성이 절약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은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 차이에 대한 인식과 한국으로 진입 이후 자신의 미래 계층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이는 이들이 경제적 문제에 대해 나름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적응 과정의 불안요인이 될 수도

14) 2001년의 4번째 세계가치조사의 같은 항목 조사에서 한국은 92.3%, 필리핀은 64.7%였다. 10년 만에 한국은 책임감에 대한 가치인식이 감소한 반면 필리핀은 그 폭이 크지는 않지만 상향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15)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2012년 실태조사에서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의 다문화가족은 41.9%였다. 이에 반해 전국 비율은 17.7%였다.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는 98.4%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들이 얼마나 종교를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같은 항목의 세계가치조사에서 한국과 필리핀은 각각 25%와 59.8%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주여성은 필리핀 일반의 응답보다도 훨씬 높은 정도로 종교적 신념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한국인 남편 또한 세속적 가치를 더욱 중시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인식의 차이가 갈등으로 나타날 개연성도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다른 한편으로 종교적 결속, 특히 가톨릭은 필리핀 이주민들이 한국 입국 이후에도 이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러한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가치로서 이타심과 순종(obedience) 항목을 보면, 먼저 이타심의 경우 이주여성은 74.7%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세계가치조사의 동일 항목 조사에서 한국은 10.5%, 필리핀은 31.8%로 약 20%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이타심을 중요한 가치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는 다른 항목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로 이타심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위의 개인가치 항목에서 봉사를 중시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순종 항목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주여성은 97.8%가 순종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 한국은 8.7%, 필리핀은 40.8%로 나타났다. <표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주여성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만큼 자녀의 순종 또한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에서 제시된 특질과 달리 이타심과 순종은 관계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필리핀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가운데 한국은 무시할 정도로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이주여성은 대체적으로 필리핀 일반인 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중시하는 정도는 훨씬 높다. 자녀의 덕목, 그 가운데에서도 관계 덕목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들이 향후 자녀 양육과정에서 한국인 남편 혹은 시가와 어떠한 형태로든 갈등 내지는 불화가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한다.

다음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가계에 부부가 모두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강한 동의(28.5%)를 포함하여 동의는 94.6%에 달했고, 부정은 5.4%에 그쳤다. 2001년 조사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동의 비율은 각각 72.1%(강한 동의 24.3%), 92.1%(강한 동의 42.5%)였다. 대체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는데, 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 부부의 가계 공동기여에 대해 부정 응답도 24.6%(여성 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주여성의 가계 공동 기여 항목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강한 동의’는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전반적인 동의 정도는 필리핀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10〉 부부 역할 인식

| 부부 가계 공동 기여  |     | 강한 동의 | 동의   | 부정   | 강한 부정 | 합계    |
|--------------|-----|-------|------|------|-------|-------|
| 빈 도          |     | 53    | 123  | 10   | 0     | 186   |
| 비 율(%)       |     | 28.5  | 66.1 | 5.4  | 0     | 100.0 |
| WVS 2001 (%) | 한 국 | 24.3  | 47.8 | 21.8 | 3.2   |       |
|              | 필리핀 | 42.5  | 49.6 | 7.1  | 0.4   |       |

가족가치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항목은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설문조사이다.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물음에서 평균 2.35명을 제시했다. 2001년 조사에서 한국은 2.45명, 필리핀 3.29명 이었다. 조사 시점이 10년의 차이가 있고 경제발전 에 따라 출산율이 하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자녀의 출산과 관련해서 이주여성은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2014년 기준 한국이 1.25명, 필리핀이 3.06으로 차이가 있다. 낙태에 대한 강한 부정과 출산율의 차이를 고려해 본다면 자녀의 출산과 관련하여서도 가정 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의 출산율을 비롯한 인구통계 학적 특징과 이주여성이 한국으로 초청된 허용 조건 등에 대한 이해 교육의 필요성을 예시하는 대목이다.

## V. 이주민의 사회가치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회적 가치범주로서 제시된 것은 타자에 대한 인식, 사회인식, 그리고 직업관이었다. 먼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혹은 타인을 대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선택 항목을 주고 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타인 신뢰

| 타인 신뢰   |     |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 | 매우 조심해야 한다 | 합계    |
|---------|-----|--------------------|------------|-------|
| 빈 도     |     | 55                 | 126        | 181   |
| 비 율(%)  |     | 30.4               | 69.6       | 100.0 |
| WVS (%) | 한 국 | 26.5               | 73.0       |       |
|         | 필리핀 | 3.2                | 96.4       |       |

일반인 대상 같은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신뢰와 불신이 26.5% 대 73%, 필리핀은 3.2% 대 96.4%로 나타났다.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는 타인 신뢰 항목에서 필리핀과는 큰 격차를 보이는 반면 한국의 응답률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필리핀이 타인에 대한 신뢰가 특히 낮은 상황에서 필리핀 이주여성이 한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 경우 나이변수에 따라 비율의 변화가 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20대가 주축인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의 20대 응답(32.2% 대 66.7%)과 거의 일치한다. 반면 필리핀 일반인은 나이 변수가 거의 영향이 없다. 흥미로운 점은 타인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률과 지인 소개에 의해 결혼이 이루어진 응답률이 비슷하다는 점이다(각주 9 참조). 이러한 경향은 왜 이주여성이 타인 신뢰에 있어 필리핀 일반인 조사와 크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타인에 대한 인식의 두 번째 조사항목은 꺼리는 이웃에 대한 설문이었다. 이주여성들은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서 무슬림이 32.8%로 가장 많았고, 동성애자(24.2%), 타인종(16.1%)이 그 뒤를 이었다. 특별히 꺼리는 이웃이 없다는 의견도 21.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래(〈표 12〉)는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2〉 꺼리는 이웃

| 꺼리는 이웃 | 없다   | 다른 인종 | 무슬림  | 이민자/ 외국인노동자 | 동성애자 | 합계    |
|--------|------|-------|------|-------------|------|-------|
| 빈 도    | 40   | 30    | 61   | 10          | 45   | 186   |
| 비 율(%) | 21.5 | 16.1  | 32.8 | 5.4         | 24.2 | 100.0 |

세계가치조사에서 다른 인종을 지목한 응답률은 한국이 34.1%, 필리핀이 21.6%로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필리핀 이주여성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2001년 한국과 필리핀 세계가치조사에서 무슬림을 이웃으로서 꺼린다는 응답은 한국이 57.3%, 필리핀 26.4%였다. 필리핀이 비교적 무슬림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무슬림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서 이주여성들은 한국과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를 꺼리는 이웃으로 선택한 경우는 5.4%로 매우 낮게 나왔는데, 일반인 조사에서 한국이 44.2%, 필리핀 14.1%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필리핀과 성향이 유사하고,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이주여성들이 앞으로 이주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자의 경우는 24.2%로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같은 설문에서 한국은 79.8%, 필리핀 27.9%로 이 또한 한국과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종, 종교 등 ‘차이’에 대해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선택적으로 한국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자리가 부족할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진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응답률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남녀 평등의식

| 남성의 우선권    |     | 동의 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둘 다 아니다 | 합계    |
|------------|-----|-------|----------|---------|-------|
| 빈 도        |     | 70    | 71       | 44      | 185   |
| 비 율(%)     |     | 37.8  | 38.4     | 23.8    | 100.0 |
| WVS<br>(%) | 한 국 | 32.2  | 22.6     | 44.8    |       |
|            | 필리핀 | 59.2  | 19.8     | 20.8    |       |

이주여성들은 동의와 비동의가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왔다.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는 한국은 동의가 32.2%, 필리핀은 59.2%의 동의가 있었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각각 22.6%로 19.8%로 비슷했다. 이주여성의 경우 남녀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있어서는 한국과 유사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비율, 즉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필리핀 모두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여성들의 비동의 비율(28.5%)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비동의 비율(16.6%)보다는 훨씬 높다. 이로 미루어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남녀평등 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인식은 결혼생활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가운데 이주여성의 직업관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과 여가 가운데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제시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경우 1점, 일을 중시하는 경우 5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주여성은 평균 3.68점으로 일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1년 조사에서 한국은 3.49, 필리핀은 4.24로, 필리핀 일반인들은 일을 훨씬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다. 이와 비교해 보면 이주여성은 필리핀 일반보다는 한국과 근사치로 일과 여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보다는 낮지만 한국보다는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직업관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자질(talent)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진술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응답 비율은 <표 14>와 같다.

<표 14> 직업과 성취의 관계 인식

| 직업과 성취      |     | 강한 동의 | 동의   | 중립   | 반대  | 강한 반대 | 합 계   |
|-------------|-----|-------|------|------|-----|-------|-------|
| 빈 도         |     | 58    | 89   | 31   | 8   | 0     | 186   |
| 비 율(%)      |     | 31.2  | 47.8 | 16.7 | 4.3 | 0     | 100.0 |
| WVS 2001(%) | 한 국 | 51.6  | 37.1 | 7.4  | 2.4 | 0.8   |       |
|             | 필리핀 | 43.2  | 49.2 | 5.0  | 2.5 | 0.1   |       |

진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비율이 높긴 하지만, 강한 동의는 31.2%에 그쳤다. 2001년 조사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강한 긍정의 비율은 각각 51.6%와 43.2%였다. 한국과는 다소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이주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에 비교적 낮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직업을 자질 개발이나 성취동기의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수단적 기능, 일례로 별이라든가 가족부양 수단 등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이주의 동기가 가족부양 등 경제적 이유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번째 해석이 현실에 가까워 보인다.<sup>16)</sup>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으르다”(일과 게으름), “일을 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다”(직업의 무), “일은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일의 우선성)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16) 특이한 점은 이 질문 문항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중요한 차이를 낳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성취와 직업을 연결시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서구 국가들은 이 진술에 반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참고로 이 진술에 대한 반대 비율은 중국 9.8%, 일본 3.5%, 한국 3.2%, 필리핀 2.6%, 베트남 1.2%인데 반해 캐나다 30.6%, 스페인 23.6%, 스웨덴 29.1%, 미국 33.6%로 나타났다.

물은 설문 응답은 아래 <표 15>와 같다. 먼저 '일과 게으름' 항목에 대해 2001년 세계가치조사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강한 동의 비율은 각각 49.8%, 28.1%였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이주여성은 필리핀 일반의 응답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특히 한국은 진술에 대한 전반적 동의 비율이 94.3%에 달해 한국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훨씬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만약 이주여성이나 그녀의 남편이 직업이 없을 경우 한국 사회에서 그녀들이 인식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가혹한 평가를 받을 것임을 예고한다.

<표 15> 직업에 대한 인식

| 일과 게으름        |     | 강한 동의 | 동의   | 중립   | 반대   | 강한 반대 | 합계    |
|---------------|-----|-------|------|------|------|-------|-------|
| 빈 도           |     | 56    | 66   | 37   | 23   | 4     | 186   |
| 비 율(%)        |     | 30.1  | 35.5 | 19.9 | 12.4 | 2.2   | 100.0 |
| WVS 2001(%)   | 한 국 | 49.8  | 34.5 | 7.3  | 5.4  | 1.7   |       |
|               | 필리핀 | 28.1  | 36.5 | 17.0 | 16.3 | 2.1   |       |
| <b>직업의무</b>   |     |       |      |      |      |       |       |
| 빈 도           |     | 51    | 108  | 21   | 6    | 0     | 186   |
| 비 율(%)        |     | 27.4  | 58.1 | 11.3 | 3.2  | 0     | 100.0 |
| WVS 2001(%)   | 한 국 | 25.8  | 33.5 | 22.3 | 11.8 | 4.2   |       |
|               | 필리핀 | 27.0  | 49.4 | 22.3 | 6.8  | 0.6   |       |
| <b>일의 우선성</b> |     |       |      |      |      |       |       |
| 빈 도           |     | 30    | 78   | 55   | 19   | 4     | 186   |
| 비 율(%)        |     | 16.1  | 41.9 | 29.6 | 10.2 | 2.2   | 100.0 |
| WVS 2001(%)   | 한 국 | 13.3  | 25.0 | 22.2 | 26.6 | 11.6  |       |
|               | 필리핀 | 33.5  | 49.4 | 9.6  | 7.1  | 0.4   |       |

직업의무에 대한 응답에서 강한 동의 27.4%, 동의는 58.1%로서 이주여성들이 이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85.5%)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2001년 조사에서 한국의 동의 비율은 59.3%, 비동의 비율은 16%였다. 필리핀 일반은 이주여성의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를 놓고 볼 때, 한국보다는 필리핀 이주여성 쪽이 일을 보다 더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의 우선성과 관련하여 2001년 조사에서 한국은 동의가 38.3%(강한 동의 13.3% 포함),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38.2%(강한 부정 11.6%)였고, 필리핀은 동의가 82.9%(강한

동의 33.5%)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한국의 20대는 이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약 50%에 달했다. 이주여성은 일의 우선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한국과 필리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그러나 일의 우선성에 대한 부정(12.4%)은 매우 낮아 필리핀 일반 조사와 유사하다. 이상의 직업관을 통해 볼 때, 이주여성은 일에 대한 애착이나 의무 의식이 한국보다 대체적으로 높으며,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가계의 부부기여에 대한 의견에서 압도적인 다수(94.6%)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과도 상응하는 결과이다.

이주여성의 사회적 가치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로 권위 존중, 개인의 책임성, 위험 수용성, 민주주의, 이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사회적 권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향후 권위에 대한 존중이 더 높아지는 것(greater respect for authority)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16〉 참조). 이에 대해 이주여성들은 90.3%가 좋은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에 그쳐 권위에 대한 존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6〉 사회적 권위에 대한 인식

| 권위 존중 증가 |     | 좋은 일 | 상관 없다 | 나쁜 일 | 모름  | 합계    |
|----------|-----|------|-------|------|-----|-------|
| 빈도       |     | 167  | 12    | 2    | 4   | 185   |
| 비율(%)    |     | 90.3 | 6.5   | 1.1  | 2.2 | 100.0 |
| WVS(%)   | 한국  | 26.9 | 32.7  | 39.0 | 0.1 |       |
|          | 필리핀 | 79.2 | 17.2  | 3.6  | 0   |       |

세계가치조사에서 같은 조사항목에 대해 한국은 ‘좋은 일’이라는 응답은 26.9% 머물렀고, 반면 ‘나쁜 일’이라는 응답은 39%였다. 필리핀의 경우 긍정 응답이 79.2%, 부정 응답이 3.6%로 한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혹은 경험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 이주여성이 권위에 대해 한국과 필리핀 모두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한국의 가부장적 권위가 많이 약해지기는 하였으나, 일정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권위에 대한 긍정 평가는 부부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권위(authority)가 가정에서의 권위를 특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말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정부 책임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등간척도를 활용하여 질문을 제시했다. 먼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진술과 “정부가 좀 더 책임성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진술에 대해 전자에 동의하면 1점, 후자에 동의하면 10점에 표기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정부 책임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5.07점으로 나타났다. 세계가치조사에서 정부 책임성에 대해 한국은 평균 6.45점, 필리핀은 3.91점이었다. 즉 한국이 필리핀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정도로 정부의 책임성을 증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주여성은 필리핀 일반의 평균보다는 높지만 한국보다는 낮게 나왔다. 즉 국민의 삶에 대해 국가가 개인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한국보다는 낮다. 이는 이주여성이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이며, 정부의 이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가난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또한 실시했다. 즉 “가난은 게으름과 의지 부족 때문이다.”라는 진술과 “가난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 때문”이라는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본인의 의견에 가까운지 물어보았다. 설문 결과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전자에 58.3%,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후자의 진술에 41.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조사에서 정부의 역할을 비교적 낮게 보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주여성의 삶의 변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누구나 인생의 주요한 변화를 만드는 데 주의해야 한다.”(1점)와 “성취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10점)라는 진술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삶의 변화 수용성은 4.06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변화 수용성에 대한 일반인 조사(1996년)에서 한국은 3.37점, 필리핀 5.03점으로 필리핀인들이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조금 다른 질문 항목이었으나 2010년(한국), 2012년(필리핀)의 모험과 위협을 감수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은 3.41점, 필리핀은 2.97점(6점 리커트 척도, 낮을수록 위험 감수성 높음)으로 나타났다. 역시 한국보다는 필리핀이 위험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주여성은 변화 수용성이 필리핀 일반보다는 낮고, 한국 일반보다는 좀 더 높다. 국제결혼이라는 대단히 모험적일 수 있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필리핀 일반에 비해 변화 수용성이 낮게 나온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필리핀의 경우는 이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국제결혼 또한 그다지 모험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보다는 위험 감수성이 높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을 꾸려가는데 있어 이주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인식을 비교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질문은 각각 “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제 시스템은 잘못 운영된다.”(경제운영 미숙) “민주주의 하에서 결정은 늦고, 너무 많은 분쟁이 야기된다.”(결정지연과

분쟁) “민주주의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서투르다.”(무질서)를 제시하였다. 각각에 대한 필리핀 이주여성의 응답은 <표 17>과 같다.

<표 17>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 경제운영미숙          | 강한 동의 | 동의   | 부정   | 강한 부정 | 합계    |
|-----------------|-------|------|------|-------|-------|
| 빈 도             | 16    | 81   | 70   | 14    | 181   |
| 비 율(%)          | 8.8   | 44.8 | 38.7 | 7.7   | 100.0 |
| <b>결정지연과 분쟁</b> |       |      |      |       |       |
| 빈 도             | 15    | 87   | 71   | 5     | 178   |
| 비 율(%)          | 8.4   | 48.9 | 39.9 | 2.8   | 100.0 |
| <b>무질서</b>      |       |      |      |       |       |
| 빈 도             | 21    | 89   | 65   | 6     | 181   |
| 비 율(%)          | 11.6  | 49.2 | 35.9 | 3.3   | 100.0 |

민주주의와 관련한 비판적 진술에 대한 동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경제운영 미숙에 대한 동의 비율을 53.6%, 결정지연과 분쟁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은 57.3%, 민주주의가 질서 유지에 서투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은 60.8%에 이르렀다. 물론 이들 각각의 진술에 대한 부정 의견도 상당수에 이르렀지만 성향은 대체적으로 민주주의에 우호적이라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2001년 세계가치조사에서 각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을 보면, 먼저 민주주의에서 경제가 잘못 운영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는 한국 13.6%, 필리핀 51.1%,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결정이 늦고 분쟁이 잦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과 필리핀의 동의 비율이 각각 31.7% 대 56.4%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가 질서유지에 서투르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비율은 한국이 19.9%, 필리핀이 49%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이번 조사 대상이 주로 속한 20대, 여성의 변수를 포함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민주주의가 무질서를 가져온다는 진술에 대해 한국의 여성은 17.7%, 필리핀의 여성은 51.1%가 동의하였다. 일반조사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20대가 민주주의에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반면 필리핀은 세대 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나이변수 또한 한국과 필리핀의 격차를 키운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이 경향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가운데, 이주여성의 경우는 부정적 인식이 한국은 물론 필리핀 일반보다도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주여성은 주로 20대로서 한국과 비교하여 민주주의의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이러한 결과에 통해 이들에 대한 초기 정착 과정에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은 정주를 목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귀화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들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 편입될 것이다. 그런 만큼 초기에 이들에 대한 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종교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종교가 사회가 처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주여성은 72.7%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부정 응답은 27.3%였다. 2001년 같은 항목의 조사에서 한국의 긍정 응답은 16.2%, 필리핀 일반의 긍정 응답은 50.2%였다. 다음으로 “당신은 종교로부터 편안함과 힘을 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주여성의 긍정 응답이 94.6%였다. 다시 말해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이주여성이 종교로부터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유사한 질문 항목으로 삶에 있어 신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10점(매우 중요하다)의 등간 척도로 질문하였다. 이주여성은 평균 8.99점으로 일상생활에서 신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세계가치조사에서 동일 항목 조사 평균은 한국이 5.37, 필리핀이 9.48점으로서 두 국가의 차이가 현저했다.

종교와 공적 영역과의 관계에 대한 가치 인식을 보자면, 이주여성들은 대체적으로 공무원 혹은 정치인은 신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종교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을 믿지 않는 정치인은 공직에 부적당하다.”라는 진술과 “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한다면 (국가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는 진술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질문에 대해 이주여성은 56.6%(강한 동의 19.21% 포함)와 64.4%(강한 동의 18.9%)가 동의하였다. 부정 응답은 각각 11%, 4.5%에 그쳤다. 2001년 세계가치조사에서 첫 번째 질문 항목에 대해 한국의 동의 비율은 9.3%에 불과했으나 필리핀은 71.2%가 동의하였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 비율은 20.8%, 필리핀은 75.1%였다.

이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필리핀은 일상적 삶과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한국보다 훨씬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주여성 또한 이러한 경향에서는 다르지 않다. 다만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이나 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필리핀 일반보다는 다소 덜한 정도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종교는 적어도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통합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

17) 세계가치조사의 민주주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필리핀 전체는 8.04점(10점 만점)이었으나 20대는 7.75점으로서 오히려 낮게 나온다. 참고로 2013년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8.06점(21위), 필리핀은 6.41점(66위)이었다.

이 장의 마지막 설문 항목은 국가관에 대한 조사이다. 먼저 국가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84.6%가 “매우 자랑스럽다”는 응답 항목을 선택하였다. 같은 항목 조사에서 한국은 23.6%, 필리핀은 85.1%가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주여성은 필리핀의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와 “아니요”라는 응답을 요청한 “전쟁이 벌어진다면 당신의 국가를 위해 기꺼이 싸울 것입니까?”라는 질문에서 이주여성은 86.7%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세계가치조사에서 한국은 63%, 필리핀은 82.5%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은 필리핀이 자국에 대한 애정(애국심)이 한국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민족국가 체계에서 문화는 국가의 경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주여성들의 자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큰 애착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Ⅵ. 결론

이상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필리핀 이주여성의 개인적 가치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유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첫째, 가족에 대한 절대적 중시는 ‘가족’의 형성과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조울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인다. 두 번째는 일을 중시하는 태도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으며, 이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은 이주민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봉사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는 이주민 간의 상호부조를 기본으로 하는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넷째, 삶의 행복감과 만족감이 상당히 높고, 자신의 삶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이들에 대한 초기 정착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함을 암시한다. 여섯째, 선악 기준 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들의 삶이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정책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가지는 역할에 일정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점은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 이해 교육에서 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주민의 가족 가치 인식을 통해서도 첫째,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시부모 부양 등에 쉽게 응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다만 자녀에 대한 의무감이 높은 점은 이주여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높이며, 학교 현장에서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자녀 양육에 있어 중시하는 가치(상상력, 절약, 종교, 이타심, 순종)가 한국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자녀 양육의 가치 차이는 이주여성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해당 덕목이 권장할 만한 가치라는 점에서 주류에 대한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이다. 세 번째로 이주여성들이 가계에 대한 공동 기여 의지가 크다는 점은 직업 알선을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가치 인식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과 연관되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자녀수에 대한 차이와 낙태에 대한 강한 부정 등은 초기 교육 과정에서 한국의 인구 상황 및 인식 등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게 한다.

필리핀 이주여성의 사회적 가치인식에 대한 검토는 다음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차이에 관용적인 반면 오히려 한국 일반이 이민자나 동성애자, 타인종 등에 비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문화 시민 교육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당위를 보여준다. 둘째, 한국인 일반이 일이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훨씬 가혹하다는 점에서, 또한 이주여성들이 일을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권위의 증가에 대한 긍정 평가는 권위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개인이 스스로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점은 정부가 제공하는 시혜적 정책에 이들의 반응성이 낮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러한 성향을 고려하여 이들의 권리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은 이들이 향후 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이는 위의 공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호조건은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위치로 인해 정치를 중시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종교의 중요성은 거듭 확인된다. 이주민 공동체가 이들의 정착과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필리핀과 같이 특정 종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이주민 공동체는 종교적 색채를 띠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종교를 이주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이 국가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는 점은 해당 국가의 문화를 고려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약 180만 명의 이주민이 장·단기로 체류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이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전제된 이들 또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통합에 이를 것인가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다문화정책을 표방하였고, 현재에도 그것이 이주민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다문화정책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다. 또한 그러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왜냐하면 다문화정책은 이주민, 원주민, 소수민족 등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사회를 전제하는데, 인구 구성상의 이질성은 그 모습과 양태가 국가 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정책의 출발점으로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차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수문화의 인정(recognition), 그리고 공존의 가치 창출을 통한 사회통합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의 가치인식에 주목하고 있는 이 글이 의미를 획득하는 지점은 바로 이곳이다.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동화주의와 유사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되었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비판은 큰 이견 없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비판의 요지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에서는 이주민 집단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채 동화주의와 유사한 ‘다문화정책’이 유지·지속되는 것은 나름의 내적 논리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sup>18)</sup> 그러한 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주민의 가치에 주목하고자 하는 여러 부문의 노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혹은 매우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 이주민에게 체화되어 있는 문화 가치를 살펴보고, 그것을 한국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한국과의 가치인식 비교는 그러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가치의 차이와 유사성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었다. 다문화정책이 각 문화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정책이라면, 한국과는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이주민의 특성과 가치인식을 파악하는 데 정책의 출발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가치체계를 신념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이주민 정책, 한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문화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항목이다. 이주민에 대해 자신의 문화와 신념 및 가치체계를 버리고 단지 한국 사회의 그것을 체화할 것을

18) Lee(2015)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다문화주의의 나아가 이민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쟁의 부재, 가족주의, 민족주의와 연계된 국가온정주의, 이민정치의 부재 등에서 찾고 있다. 또한 다문화정책의 대상이 한국 국민과의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결혼이주민에 주로 한정되다보니 이들의 문화를 고려하는 것은 애초부터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족의 구성과 유지에 초점을 둔 정책이 문화집단의 정체성을 염두에 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요구할 것이 아니라면 이들의 신념화된 가치와 주류사회와의 가치 차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서술되었다.

한국의 이주민 정책과 관련하여 이 글의 두 번째 함의는 이주민의 가치인식을 중시하는 것은 그들을 주체로 보는 관점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다문화정책에서 이주민을 객체로 하는 주류의 시혜 내지는 기여라는 측면만이 부각된다면 그러한 이주민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국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그로 인해 정책의 후퇴가 나타나는 것은 다문화정책이 시혜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sup>19)</sup> 이러한 한계는 이주민을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을 정책결정과정에서 포함시킬 때 극복될 수 있다. 이주민의 가치에 주목하는 것은 그들을 정책 수혜의 대상 혹은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인식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주민의 문화와 가치는 그것대로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가치라는 것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동하는 무엇이다. 특히 이주민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새로운 문화 환경에 인입되었기 때문에 가치인식의 변동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관점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이주여성의 가치인식을 한국과 본국의 그것과 나란히 비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이 글은 특정 국가(필리핀)의 특정 목적(국적자와의 혼인)의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연구의 제약 상 모집단이 크지 않다는 한계 또한 있다. 그럼에도 이주민의 가치체계를 다루고자 했던 이 글을 계기로 이주민의 문화가치에 보다 주목하고, 그것을 주류와의 관계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연구가 보다 많이 진척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19) 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으로서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반영하여 균형 잡힌 정책 기조 유지”를 들고 있다. 같은 문서에서 “반다문화 현상의 표출 및 외국인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 요구”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다문화정책의 일부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5년 3월호.” 법무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013. 2. 26. “보도자료: 지난 3년간 다문화가족의 초기 한국생활 적응이 진진.” 여성가족부.
- 외국인 정책위원회. 2012.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이용승. 2014. “국제이주의 동기에 관한 연구: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8(1).
-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14. "The Philippines in Figures 2014." 출처: <http://web0.psa.gov.ph/sites/default/files/2014%20PIF.pdf> (검색일: 2015. 4. 20.).
- Lee, Yong Seung. 2015. Discussion on Multiculturalism in Korea: The Origin of Lack of Opposition to Multiculturalism. OMNES 5(2).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 "Democracy index 2013: Democracy in Limbo."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td.
  
-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http://www.kosis.kr)
- 세계가치조사 [www.worldvaluessurvey.org](http://www.worldvaluessurvey.org)
- 세계가치조사 온라인 분석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ONline.jsp>
-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index.html>

● 투고일: 2015. 5. 4.    ● 심사일: 2015. 5. 6.    ● 게재확정일: 2015. 5. 13.

## **Study on the values of migrants: Focusing on Filipino women migrants**

Lee Yong Seung  
(Daegu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values of the Filipino migrant women who are finally approved migration to Korea and take final process for coming to Korea. Values that migrants had prior to entering to the receiving country are very important since they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daptation in initial settlement and integration to the receiving countries. Marriage migrants are assumed to be engaged in the day-to-day life in Korea, not as individual but as a co-member of the family with Korean. Previous examines about what values migrants have and how much they share or do not share the values with mainstream is critical element in the process of forecasting their personal life as well as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social integration.

In the body of this article, I would extract policy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migrants' personal, family, and social values with Korean Values. For this purpose field survey in Philippines was conducted for about six months with assistance from CFO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and the result was compared with the result of World Values Survey. In conclusion the requisit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migrant policies are suggested. If the multiculturalism policy considers the cultural heterogeneity of respective cultures, understanding about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f values of migrants is the starting point of that policy. This article has a meaning in that respect.

**<Key words>** Values of migrants, World Values Survey, Perception of cultural values, Immigration Policy, Social Integration